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제37대(2017년) 회장 **성 문 희**

2015년 학회장 후보자로 학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드렸던 후보자의 약속을 2017년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다 지켰는가? 먼저 자신에게 깊이 반문하면서 2017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를 되돌아 봅니다.

“한국 산업미생물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17년도 학회장 후보자로 학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학회에 버팀목을 해주신 학회 후원 기업과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우리 학회가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제 협력에 기여한 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학회의 국제화 및 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학문적 산업적 시대 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회로 위상정립에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명실상부한 위상 정립에는 영남과 호남지역의 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 지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과 균형적인 학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한미생이 걸어온 발자취는 학회 회원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은 “확대 발전해나가는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위상에 걸맞는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한 걸음 내딛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28일에 지난 20여 년간 우리 학회의 성장과 함께 해 온 과학기술회관 본관 사무실을 떠나 과학기술회관 신관 402호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학회 전용의 회의실과 그동안의 한미생 생생한 역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실을 보유하는 변화와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생 학회 사무국의 확장 이전에는 KMB 아카데미 회원님들이 그동안 구축하신 학회 재원 및 2015년 학회장 정건섭 교수님(간사장 이규호 교수님)과 2016년 학회장 이철훈 교수님(간사장 이정기 교수님)의 사무국 이전기금의 적립과 학회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미생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셔서 학회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16일 한미생 개소식 및 현판식 행사 사진〉

〈2017년 11월 16일 한미생물 개소식 및 현판식 행사 사진〉



사진 1: 개소식 (사회 명희준 간사장), 사진 2: 축사 (이준식 KMB 아카데미 회장님),
 사진 3: 진행 보고 (김동욱 총무, 남수완 수석부회장), 사진 4: 학회 연혁 보고 (명희준 간사장),
 사진 5: 한미생물의 발자취, 사진 6, 7: 한미생물 새로운 한 걸음 축하!